

축사 말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렵고 불편한 와중에도 학문의 공공적 가치와 연구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 서 실천해주시는 지식공유연대에 이 자리를 빌려 응원과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긴 준비를 거쳐 출범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식공유연대가 지향하는 ‘오픈액세스’는 말 그대로 인터넷 시대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지식 정보를 개방하자는 운동입니다.

오픈액세스 운동은 90년대 후반 온라인 출판을 통해 지적산물을 공유하자는 시도 이후, 2002년 부다페스트 선언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전이 매우 느리다가 최근 다시 전 세계적으로 오픈액세스를 가속화하고, 학술논문 뿐 아니라 데이터정보까지 공유하자는 오픈사이언스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시대에 그 필요성이 더 절감됩니다.

오픈액세스 운동은 학술논문의 유통을 영리목적의 상업적 출판사가 전담하면서, 자유로운 지식의 소통이 구독료의 벽에 막혀버린 모순을 해결하고자 생긴 운동입니다. 그 근저에는 모든 지식은 공유재라는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연구자금이 투입된 연구와 학술활동의 결과물인 논문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용자는 물론 논문의 생산자까지도 고비용, 저작권, 상용DB 업체와의 계약문제 등으로 논문 접근이 어렵게 되어있고, 이는 학술 활동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도서관들은 치솟는 구독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학술지구독을 줄여가고 있으니 이대로 간다면, 수준높은 지식은 높은 담장에 막힌 실포도가 되어 도태될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술지식의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이 해야 할 일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들이 오픈액세스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문공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올해에는 학술지평가시 민간업체와의 잔여 계약이 있더라도 원문공개 의향을 표명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고, 그 결과, 많은 학회에서 원문공개 의향을 표하였습니다. 완전한 오픈액세스로 가는 과

정에서, 더 많은 학회가 원문공개에 참여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전한 오픈액세스 지표를 학술지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픈액세스 출판을 선언한 학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오픈액세스 학술지 발간지원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재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에 대해서 오픈액세스를 의무화하는 정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책과함께 예산이 받쳐줘야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학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공유연대에 참여하시는 여러 전문가들의 협조와 관심이 재단의 오픈액세스 정책 시행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단과 지식공유연대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격려와 응원을 함께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7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